

# 20년 티끌모아 불교회관 우뚝

## 포항불교거사협회 1억6천만원 모금, 두호동에 건립

포항지역 노거사들이 20년간 실시  
일반으로 모금액 대지 80평, 건평 50  
평의 자체 불교회관을 건립했다.

포항불교거사협회(회장 김경세)는  
11일 포항시 두호동 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  
교회관 개관법회를 개최했다.

52명의 회원들은  
83년 포항불교거사  
협회를 창립하면서  
전세 법당을 전전하  
다가 후배들에게 만  
이라도 제대로 된  
법당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발원을  
세웠다. 법당 건립을 발원할 당시만  
해도 40대 팔팔한 청년이었던 회원  
들이 어느덧 지금은 60대의 백발이  
패 버렸다. 그러나 후배들이 맘 편히  
수행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법당  
을 마련했기에 마음만은 든든하다.

비록 조립식 건물로 지어진 회관이  
지만 건립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  
니다.

1억6천여만원이 들어간 회관건립  
에는 회원들이 모은 1억1천여만원과  
대출받은 5천여만원으로 이뤄졌다.  
포항불교거사협회는 앞으로 불교회  
회

을 출석률을 유지하고, 매달 한차례  
씩 노인무료요양시설인 정애원 봉사  
활동, 군 방담 및 지역청년회 지원,  
불우이웃 돕기에도 적극 나섰다. 노  
거사들은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수  
돛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건립발원때의 40대회원들 백발성성

### 청년회등 법당 필요 실행단체에 제공

관을 청년회등 법당이 필요한 실행단  
체에 법회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거사협회 불교회관을 건립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동안 펼쳐온 실행  
활동에 있다. 회원 대부분이 재직  
사장을 가지고 있지만 매월 12일과  
지장재일에 개최하는 정기법회에 늘

포항불교거사협  
회 강행규 교회이사  
는 "회원들의 회비  
에서 회관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성금모  
금 등으로 조금씩

마련하다 보니 한때는 설마 법당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었다"며 "수미산도 티끌 하나에서 시  
작되었듯이 회원들의 일심단결로 수  
많은 역경을 파고들며 오늘이 있  
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nia.com



부산보현의집에 살고있는 실직노숙자들이 휴경지를 개간하여 수확한 쌀 60포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실직 노숙자들이 땅과 정성으로  
일군 3천 여 평의 휴경지에서 수확된  
쌀 60포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  
달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

산 보현의 집(원장 이기표)에서 살  
고 있는 노숙자 80여명은 보현의 집  
에서 노숙자들의 심리적 재활과 자  
립을 목적으로 진행한 농사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양산시 하북면의

# 노숙자들, 휴경지 일궈 벼농사 어려운 이웃에 쌀 60포대 '선뜻'

## 부산보현의집 자비회 소속 80명 선행

휴경지를 개간하고 쌀 농사를 지어  
왔다. 1년 동안 노동과 땀을 대가로  
수확된 쌀은 60포대(20kg). 노숙자  
들은 쌀 전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  
해 선뜻 내놓았고 10일 부산보현의  
집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부산 동  
래구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소년소  
녀가장 등 결손 가정 60세대에 전  
해했다.

평소 자비회라는 봉사 모임을 만  
들어 매월 양로원 봉사활동을 해왔  
던 노숙자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가꾼 쌀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놓는 자비행을 실천해 따듯  
한 겨울을 나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자비회 소속 노숙자들은  
올 여름 수해가 휩쓸고 간 김해 한림  
지역 복구에도 적극 동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총회 생활지도사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겪었기  
에 힘들고 소외 받는 이웃들을 돕는  
데 더욱 적극적인 것 같다"며 "남을  
돕는 즐거움과 만족이 이 분들의 자  
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경주에 역사문화정보센터 건립

## 2004년까지 경전·향토사료 등 DB화, 일반에 제공

경주에 역사·문화 관련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문화정보센터  
가 세워진다.

경주시는 2004년까지 경주시립도

서관의 기존 신라역사문화자료실을  
확대 개편해 '경주역사문화정보센  
터'를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비 2억8천여만원이 투입될 경

주역사정보센터는 경주의 역사와 문  
화에 관련된 불교경전, 고서적, 탁본,  
향토사료 등의 자료를 조사·발굴하  
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가공 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과 연구자  
들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할 방침이다.

특히, 경주시립도서관은 지난 98  
년 문화관광부의 신라역사 관련 특  
화공공도서관으로 지정돼 1만건에  
달하는 논문과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원구기자

### 금당사 괘불탱화 보수

#### 문화재청 실태조사 마쳐

보물 1266호인 진안 금당사 괘불  
탱화가 전면 보수에 들어간다.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은 11일 "문  
화재청의 실태조사가 끝나고 문화재  
청에서 현장 방문이 나오는 12월말경  
금당사 괘불탱화의 정밀 보수에 들  
어간다"고 밝혔다.

금당사 괘불탱화는 1692년에 만  
들어진 폭 5m 높이 9m의 불교 미술  
작품이다. 마포 직조로 본불을 중심  
으로 보살 등이 배치된 색채화이다.

금당사 괘불탱화는 화려한 색채와  
치밀한 무늬가 아름다워 통도사 '관  
음보살 괘불탱', 무량사 '미륵보살  
괘불탱'과 더불어 3대 보살 괘불탱  
으로 꼽힌다.

강유신기자

# 다보탑등 국보급 탑 3기 보수

## 경주시, 1차 5억 투입 훼손복원·안전진단도

경주시가 불국사 다보 석탑 갑  
은사지 석탑 등 3기에 대한 보수작업  
에 들어간다.

경주시는 9월 1차로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석탑 표면에 낀 이끼류  
를 제거하고, 다보탑 난간석의 마모  
된 부분을 살려서 교체작업을 확인하  
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 국보급 석탑 3기에 대한  
전문업체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다

보탑이 0.6도 기울어진 현상과 불국  
사 다보탑과 석탑, 감은사지 서탑  
이 표면과 부재 등에 훼손이 진행중  
인 것이 발견된 바 있다.

경주시는 특히 국보 20호인 다보  
탑에 1억4천만원, 국보 21호인 석가  
탑과 국보 112호인 감은사지 서탑에  
각각 2억원을 앞으로 3~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 "개구리소년들 부디 극락왕생 하기를"

## 대구동화사 영가천도제

실종 11년만에 씩씩한 유골로 발  
견된 대구 성서 개구리소년들의 극  
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제가 8  
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스  
님과 신도, 유가족 등 사부대중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영가천도제는 어린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성서 와룡산 세방골 현장에  
서 덕원스님(동화사 사회국장)의 집  
전으로 다섯 아이들의 혼을 불러오  
는 청혼의식, 부처님께 공양을 권하  
는 의식인 상단공경을 시작으로 분  
향, 추모시 및 추도사, 영가천도식 등

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대표 김현도씨(58)는 인사말  
에서 "천도제를 마련해 주신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과 우리 아이들을 찾  
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한다"면서 "하루빨리 범인을 찾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가는 무상의 도리에 따라 다섯 아  
이들도 이제 극락왕생 할 것"이  
라며 "유족들도 슬픔과 분노를 추  
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 영천 군법당 화랑선원 개원

## 은해사·대구경북포교사단, 22평 규모

법회 볼 공간이 없어 지금껏 다른  
군부대의 법당을 빌려 썼던 영천 화  
랑부대(부대장 박성우) 불자장병들  
이 지역 불교계의 도움으로 새 법당  
을 마련했다.

은해사주지 법타스님과 대구경북  
포교사단(단장 권대재)은 11일 영천

시 오미동에 위치한 화랑부대 내에  
군법당 화랑선원을 건립하고 개원법  
회를 가졌다.

2개월 전 부처님 초전법륜상을 조  
성한 자리 바로 앞에 마련된 법당은  
22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세워졌다.  
법당 개원식에서 은해사 승가대

학원장 지안스님은 인사말에서 "화  
랑선원 개원을 계기로 새로운 불심  
공덕을 성취해 나와 남이 함께 기  
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박원구기자

### 예술상 한하균씨 문학상 최명학씨 행원상 허중성씨

#### 마산시민문화상 시상식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태)  
는 14일 마산사보이호텔 대연회장

에서 제12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식을 가졌다.

향토 문화창달과 지역문화 발전  
에 기여한 예술인들에게 수여해온  
시민불교 문화상은 예술상, 문학상,  
행원상(지역개발) 부문으로 나뉘  
여왔다.

올 수상자로 예술상은 50여 년간

70여 편의 연극을 연출해온 경남연  
극협회 한하균(70) 고문인 수상했  
으며 문학상에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최명학(61) 창원문인협회 이사가, 행  
원상(지역개발)에는 지역 방송계에  
종사하면서 향토 방송문화 발달에  
기여해온 허중성(74) 마산시문화원  
장이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 용문산 환경수호 대법회 열려

## 2천여 사부대중 향토박물관건립 저지



법회에 참석한 2천여 사부대중들은 일주문에서 공사현장까지 만장을 들고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일주문 150m 앞 현대식 향토민속  
박물관 건립 저지를 위한 '용문산 환  
경수호 대법회'가 개최됐다.

12일 양평 용문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노천법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  
구하고 법장스님(조계종 본사주지인  
합회 회장), 성타스님(불국사 회주),  
법등스님(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장)  
일연스님(봉선사 주지, 용문산 환경  
수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 자연보호와 사찰환  
경 수호의 뜨거운 의지를 나타냈다.

법회에서 일연스님은 대회사를 통  
해 "용문산 관공단지 건 소음을 유  
발하는 놀이공원이 일주문과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공사 중인 양평 향토  
민속박물관도 주변환경과는 상권없

이 설계·건축되고 있어 용문사의 수  
행환경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용문산 관공단지 개발은 천  
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  
혔다.

법혜스님(양평사암연합회 대표)은  
결의문 봉독을 통해 △양평군은 용문  
사 앞 난개발 즉각 중지 △현대식 콘  
트리트 건물 즉각 재검토 △일주문  
앞에서 매포소까지 자연녹지 보존 △  
용문산 국민관광지 종합계획은 용문  
사와 각계 전문가의 공청회를 통해  
수립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참석자들은 법회가 끝나고 일주문  
에서 박물관까지 만장행진, 양평군청  
앞 차량시위 등도 벌였다.

양평=남동우 기자

# "귀한 중창불사 돕게돼 기뻐요"

## 마산 정법사 이 대자행 신도회장

근대의 대표적인 선승인 경봉스  
님이 초대 주지를 지내며 민족의 독  
립과 교육 불사의 중심이 되었던 통  
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는 중  
창불사가 한창 추진 중이다. 도시화  
를 따라잡지 못한 사찰의 기능과 역  
할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역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모으고 있는 정법  
사의 이 대자행(62) 신도회장은 그  
래서 요즘 더욱 바빠졌다.

30대에 정법사와 인연이 된 이 회  
장은 불사 모연에 몸이 열 개라도 모  
자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오히려 감  
사한 마음이다. 한 달이 넘는 20일 이상  
을 절에서 보내면서도 "시민들의 복  
지와 문화의 중심이 될 백년내 한 번  
올까 말까하는 귀한 불사에서 심부  
름을 하고 있으니 복이 많다"고 여  
기고 있을 뿐이다. 젊어서부터 우뚝  
일복이 많았던 이 회장은 지금도 절  
에 오면 법당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  
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천 배, 만 배  
기도보다는 절을 찾는 이들에게 불  
편이 없도록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법사 안주

인의 마음이 되어 있었기에 오랫동안  
안마회, 소심회 등의 회장과 총무  
를 지내왔고 2년 전 통합된 신도회  
의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사람의 모든 재정이 신도들에 의  
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법사  
에서 신도회장의 역할은 다른 사찰  
보다 큰 수밖에 없다. 50~60명의 회  
장단이 매달 한 번씩 갖는 결산보고  
자리에서 무료급식팀, 불교용품점,



이대자행 보살(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법민행 무회장, 무료급식팀, 콘다리카합창단, 영축불교대학 등의 임원들과 사찰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

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신도들  
자랑만 계속했다.

말씀마다 신도 자랑에 바쁜 이 회  
장이지만 신도들에 대해 나름의 까  
다로운 기준이 있다. "이 절 저 절 다  
니지 말고 한 절에 소속감을 가지고  
회비를 내면서 떼떽하게 다녔으면"  
하는 것이다. 10년, 20년을 절에 다  
녀도 건성으로 다니면 스스로의 변  
화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이  
끄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소신 때문  
이다.

"이제 나만 잘 살면 그만인 시대  
는 지났다"는 이 회장은 "시민선방,  
소극장, 복지관 등을 갖추고 마산시

### 추천의 말

#### 지태스님 정법사 주지



이 회 장  
은 스스로  
를 낮추며  
절 살림 구  
석구석을  
살피고 신  
도들을 챙  
기는 마음과 실천이 돋보입니다.  
신도가 주인인 정법사에서  
는 신도들의 화합,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장님은 그 화  
합과 신뢰의 중심축이 되고 있  
으며 정법사의 재정관리 및 사  
중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  
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법사의 중창 불사 또한  
이 회장님을 비롯한 불사추진  
위원회, 기타 산하단체 신도님  
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의 중심 도  
량이 될 정법사 중창 불사에 모든 불  
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불사  
모연문을 써주었다.

마산=천미희기자



### 투명한 재정관리로 신도화합

불사추진위원회, 영축불교대학, 영  
축다도회, 분다리카 합창단 등 저마  
다의 살림을 공개한다. 사찰 재정이  
신도들에 의해 관리되니 그만큼 신  
도회의 활동도 활발하고 적극적이  
다. 주 5회 무료급식, 독거노인 도시

락 배달, 결식아동 후원 등 저 마  
다의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산하단체  
의 재정과 활동에 고된 관심과 격려  
를 보내야 하는 자리가 이 회장의 위  
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육심 없이  
알아서 잘 해주는 신도들이 있어 전